

고향 없는 사람들 (박화성)

장면 1 — 판옥이 우편배달부에게 편지(㉠)를 받아 떠듬떠듬 읽는 장면 [A]~[D]

덕근 아배가 보낸 편지 = 이주지(타관)의 실상 전달 장치. 눈 스무 마지가·소 한 마리를 준다면 말과 달리, 방 한 칸에 초석 자리까지 값을 깎아 파는 흥악한 현실이 드러남.

[C]에서 판옥이 알고 있던 정보(좋은 조건)와 [D]의 실상(본값보다 비싸게 깎아 판다)이 충돌 — 29번 ㉡의 판단 지점.

판옥의 처는 마루로 나와 쪼그리고 앉아 남편의 입을 쳐다봄 — 내용을 곧바로 전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갑갑함(28번 ㉢).

장면 2 — 삼룡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진정서까지 낸 상황, 판옥이 편지로 만류

판옥의 논리: '정답던 고향'이지만 묵은 채 자빠져 있는 논을 보면 정이 뚝 떨어진다, '고향의 참혹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 — 애착과 환멸의 공존.

31번 ㉠㉡ 근거: 환멸('그만 정이 뚝 떨어지고')과 어쩔 수 없는 이주('고향에서 쫓겨난')를 구분해 표시.

'몸만 성하면 혹시 어느 하늘 밑에서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 — 비참한 처지에서 삶 터전을 함께 마련하려는 용기(31번 ㉢).

장면 3 — 편지(㉣)를 읽은 삼룡의 반응과 답장(㉤)

삼룡의 입이 쉴룩쉴룩 일그러지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 고향 상실의 비애가 신체 반응으로 표출(31번 ㉣).

답장의 전환: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네. ... 어디든지 우리가 밭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드세.' — 상실의 비애에서 정착 의지로.

30번 서사적 기능: ㉠(덕근 아배 편지)=실상 폭로, ㉣(판옥 편지)=귀향 만류·결정 반복의 계기, ㉤(삼룡 답장)=의지의 확인. 세 편지의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정리할 것.

작품 정리

갈래	현대소설(단편, 일제강점기 농민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의지적
작가	박화성
시점/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장면에 따라 판옥·삼룡 중심으로 이동)
주제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상실하고 떠도는 농민들(디아스포라)의 비애와, 새 터전을 고향으로 만들려는 삶의 의지

특징

- 편지 세 통(㉠㉣㉤)을 서사의 축으로 삼아 장면과 갈등을 전개
- 전언과 실상의 낙차(이주지의 조건)로 식민지 농촌 수탈의 현실을 폭로
- 사투리·구어체 대화로 인물의 생활감을 살림
- '고향 없음'을 역설적 정체성('밭 딛는 곳이 고향')으로 전환하는 결말 지향

등장인물

- 판옥: 먼저 고향을 떠난 농민. 고향에 대한 애착과 환멸 사이에서 삼룡의 귀향을 만류
- 삼룡(덕근 아배): 고향으로 돌아가려 진정서까지 냈으나 판옥의 편지에 마음을 돌리는 인물
- 판옥의 처: 편지 내용을 궁금해하며 남편을 채근하는 인물

구성

- 발단: 판옥이 덕근 아배(삼룡)의 편지를 받음
- 전개: 편지로 드러나는 이주지의 참혹한 실상
- 위기: 삼룡의 귀향 시도(진정서)와 판옥의 만류 편지
- 절정·결말: 삼룡이 눈물의 답장으로 '밭 딛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다짐

전체 줄거리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 타관으로 흘러든 농민 판옥은 덕근 아배의 편지로 이주지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삼룡에게 판옥은 묵어버린 고향의 참혹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만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삼룡은 눈물을 흘리며 귀향을 접는다. 삼룡은 답장에서 '우리는 고향 없는 사람들이니, 밭을 딛고 살아가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자'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진다.

